정진에 채찍 더해 각로에 접어들길

〈覺路〉

조계총림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



석달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결제라 합니다.

무엇을 결(結)한다는 말입니까?

가고 오는 것을 결하고 시비를 결하며,

생과 사의 끝없는 윤회를 결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맺음의 결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합니다.

風動心搖樹 풍동심요수요
雲生性起塵 운생성기진이라.
若明今日事 약명금일사인댄
昧却本來人 매각본래인이로다.

바람이 불었는가? 했더니 마음이 나무를 흔든 것이요.
구름이 피어오르는가? 했더니 성품 자리에 번뇌 티끌이 일어났구나.
만약 이것 이외에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한다면
본래의 주인공을 매각해 버리게 되리라.

분명한 것은 바람이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깐 방심하는 순간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선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것'
이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건 구름이 일었건 분명한 것은 마음이 요동친 것입니다.

이 선문에서는 오직 그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밝힐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주인공과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 들어가면 이러한 안계(眼界, 깨달음의 경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契得禪機 계득선기하면
溪聲便是廣長舌 계성변시광장설이요.
空諸塵境 공제진경하면
山色皆為淸淨身 산색개위청정신이로다.

선의 이치에 계합하게 되면
시냇물 소리 그대로가 부처님 설법이요.
모든 바깥 경계가 공했음을 알면
산색이 모두 청정법신이리라.

하안거 대중 모두는 정진에 채찍을 더해서

이러한 각로(覺路, 깨달음의 길)에 접어드는

결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법은 법이 아니도다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지암 대종사



心中有自心(심중유자심)
法中有至法(법중유지법)
我今可付囑(아금가부촉)
心法無心法(심법무심법)

마음 가운데 자성심이 있고,
법 가운데 지극한 법이 있도다.
내가 이제 가히 부촉하노니
마음법은 법이 아니도다.

어느덧 병오년 하안거 결제일이 되었습니다.

천지 운행도수로 보면 무더위와 열기가 가장 차승하는 올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원에서 수행하시는 수좌 스님 및 총림 운영하시는 소임자 스님 등 사부대중 모두 무사히 하안거를 성료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게송은 태고보우(太古普愚) 스님의 전법게(伝法偈)입니다.

"공관(空觀)을 투득하여 무아(無我)를 증득(證得)하고 무위법(無為法)을 성취하여 해탈(解脫), 열반(涅槃)을 이루어라"하는 부촉의 게송이라 생각합니다. 불법(佛法)과 마음의 세계를 화엄세계로 표현한 법계연기(法界緣起)와 화엄법계와도 통하는 게송이라 봅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 한철 용맹정진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엄법계를 잘 표현한 게송으로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를 마칠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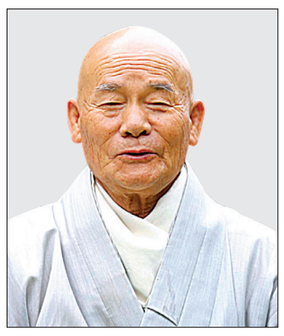
天地地天天地轉(천지지천천지전)이요
水山山水山水空(수산산수산수공)이로다
天天地地何曾轉(천천지지하증전)이리오
山山水水各宛然(산산수수각완연)이로다

나무아미타불

일심 드러날 때까지 돌이켜라

〈一心〉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天上天下無如佛 하늘 땅이 부처님
十方世界亦無比 세상이 부처님
世間所有我盡見 대자대비 사랑
一切無有如佛者 아, 부처님!

세계 최고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보고 듣는 이 물건, 이뭘까?

일심이 드러날 때까지, 마음바다가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돌이키고 돌이켜라.

백천만번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도 불러도 부를수록 지워져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미운 사람 도와야지! 대자대비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

푹~신 관세음보살 불러라.

내 얼굴이 돌아옵니다. 심정이 성스러워집니다.

대자대비 사랑으로 다 안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물건, 보고 듣는 이놈을 회복하는

여름 결제!

여름 결제는 이 문중의 청천벽력입니다.

하늘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화두

세상을 일시에 살게 하는 화두 결제, 하안거 여름 결제, 통쾌합니다.

무슨 복으로 이 결제에 주인공이 되었을까!

〈중략〉

아, 무진삼보 대자대비

목탁소리 꽉 찬 이 물건, 헤맬 일이 없습니다.

가지 끝에 나부끼는 천천 만만 나뭇잎

조도(助道)의 벗, 아~ 다 와 있었네.

때로는 걷고, 때로는 쉬고, 땅이 꺼지게 옆 사람 칭찬해 줍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도 풀도 화초들 어루만져줍니다.

한 덩어리 대적삼매, 이~뭘까?

눈 뜨면 새벽, 하늘 땅의 이 생기

날아가는 새소리 갓 없는 허공에 숨길이 터집니다.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뒤집어엎어야 합니다. 산이 물이 한 덩어리 이뭘까?

하늘도 허공도 통쾌한 화두

산하대지가 산 눈동자, 마음바다, 목숨바람,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

일상의 할 일들이 이뭘까 이 공부 경책입니다.

유아독존, 턱 밑에 숨 쉬고 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대자대비 사랑, 무진삼보 대자대비 사랑

비바람 산천초목 이뭘까 일색입니다.

걸음걸음 한 생각 발바닥으로 내리십시오.

대종소리 목탁소리 모든 소리 모든 모양 발바닥으로 내리십시오.

지심바다 한 덩어리 이뭘까?

두두가 대자대비 사랑 대성자모 관세음보살입니다.

유아독존 시아가 삼계대사 사생자부 통틀어 이뭘까?

여름 결제!

부처님의 만고 가피입니다.

한 생각으로 쉬게 하는 결제

한 생각에 퐁당 빠지게 하는 결제

화두 일색이 정상이요, 걸음걸음 통풍입니다.

부처님 눈 떴을 때 제 일성 유아독존

일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화엄경 앞이요, 산하대지 앞이로다.

일체가 내 책임!

결제는 보살행입니다. 대중 시봉입니다.

대중 시봉 큰 가슴의 결심이 여름 결제 양식입니다.

사람 몸으로 도를 닦지 않으면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넘쳐 넘쳐 강물은 잔잔히 남색인데

봉우리 봉우리 생기는 봄맛이로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놈,

문득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것이

항하사 곳곳에 탑 세우는 불사보다 공덕이 크구나.

보탑은 왔다갔다, 관세음보살 한 생각 대자대비 사랑 다 안아 일시성불

아 화두 드는 결제 용맹정진입니다.

월소학작천년몽 月巢鶴作千年夢
설옥인미일색공 雪屋人迷一色空
좌단시방유점액 坐斷十方猶點額
밀이일보간비룡 蜜移一步看飛龍

밝은 달 달빛집에 백학은 천년 꿈을 꾸는가!

눈 덮인 산천 아찔하다 일색이네.

시방이 녹아져 이 뿐인데, 이마에 남은 티는 어찌할꼬.

남몰래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용을 봐라.

나는 용을 봐라~!

이~뭘까?

나무아미타불, 거룩하다 부처님이 정성을 받으소서!

5월 31일(음력 4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총림과 덕숭총림의 결제 법어를 게재합니다. 5월 27일자 1580호에 게재된 영축총림과 해인총림, 금정총림 법어는 QR코드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 바로가기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www.rooftile.co.kr
Goryeong Rooftile Co., Ltd.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3335